

# “한국인은 위암 고위험군”...정기적 위검진 필요한 이유

## 한국인의 5대 암으로 꼽히는 위암

### 주요 발병 요인은 ‘헬리코박터균’

위암은 ‘한국인의 5대 암’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 질환이다. 나라에서는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 예방을 권고하고 있으나, 위암 발생자 수는 매년 약 3만 명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위암 발생률 1위 국가로 알려졌을 정도로, 의료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국내 위암 발생률은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유독 한국인이 위암에 취약한 이유로는 맵고 짜고 기름진 육류 위주의 식습관, 잦은 음주와 흡연을 비롯해 저조한 위암 검진율 등을 꼽을 수 있다. 몇 해 전부터 2030세대 위암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어 위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는 위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위암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대부분 유전성 요인이나 가족력, 평소 식습관, 음주, 흡연 등이 원인이 되며, 주요 발병 요인으로는 헬리코박터균(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지목된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위점막과 점액 사이 기생하는 세균이다. 해당 균 감염에 의한 만성적인 위염은 위축성 위염, 위암 발생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능성 소화불량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대변이나 위액의 역류 및 타액으로 나온 균이 입을 통해 전파된다. 비교적 감염이 쉽게 진행되는 반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 감염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

만약 위염이나 위궤양이 나타난 이후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 ▲식욕 부진 및 체중 감소 ▲상복부의 통증 및 불편감이 있는 경우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헬리코박터균은 약 복용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위암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좋기에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빠르게 발견해야 한다.

위에 질병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헬리코박터균 치료로 위암 위험 요소를 미리 해소하는 것이 위암 발생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 별다른 임상 증상이 없는 헬리코박터균은 호흡검사, 위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조기에 진단할 것이 권고된다.

위내시경 검사는 위 병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병변 발견 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및 초기 위암을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위내시경 검사는 장세척제 및 마취에 대한 불쾌감, 검사 중 생길 수 있는 천공, 출혈 등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최근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혈액검사인 ‘게스트로패널’(GastroPanel)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게스트로패널 검사는 위 바이오마커 4종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항체(H. pylori IgG) ▲렙시노겐 1 ▲렙시노겐 2 ▲가스트린-17을 동시에 검사해 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프로파일 함으로써 위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내시경만으로 알 수 없는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 위산 분비 상태, 위



축성 위염 유무 및 위의 각 부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별도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혈액검사로 검사소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이지원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위암의 주요 발병 요인인 헬리코박터균은 감염 시 별다른 증세가 없기에 꾸준한 검진이 필요하다”며 “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미리 제거한다면 위암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 오늘부터 ‘난소 나이 검사’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3만원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성의 경우 일명 ‘난소 나이 검사’로 불리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시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시 5만원을 지원한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검사 신청 후 발급 받은 검사 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환급 받는다.

## 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남성 정액검사 5만원 지원...소득기준 없어

이번 사업에는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진단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9000명으로, 5년 전인 21만 명에 비해 약 2만9000명 늘었다.

현수명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화창한 봄날, 난 왜 우울할까”...계절 탄다면 이것 의심

### 봄마다 우울한 기분 지속한다면 계절성우울증 의심해 볼 수 있어

봄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통 ‘봄을 탄다’며 가볍게 넘기게 쉽지만, 이런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계절성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스프링 피크(Spring Peak)란 1년 중 봄철 자살률이 가장 높은 현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매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1년은 3월, 2022년은 4월, 2023년은 5월이었다. 스프링 피크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봄철 우울증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봄철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다. 입학, 졸업, 취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2년 이상 봄철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울증이 생기면 침울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게 된다. 침울한 기분은 쓸쓸함, 슬픔, 불안, 절망, 허무, 답답함, 초조함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된다.

이런 증상이 계속될 경우 직업적·사회적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는 통념 때문에 방치되기 쉬우나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 치료가 핵심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우울증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약물치료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 약물의 부작용, 과거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 처방 비용 등을 고려해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게 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치료 효과는 투여 직후가 아닌 약 2주 뒤 나타나기 때문에 쉽

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 면담 치료와 전기경련요법, 두개경유자자극술, 심부뇌자극술, 미주신경자극술, 광치료 등이 있다. 전기적 치료는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만 아무래도 약물치료보다는 낫설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한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고려하게 된다.

한규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는데,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배우는 수업을 가장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이라 누구나 걸릴 수 있다”면서 “기분이 평소와 같지 않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봄에는 시기적 특성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10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